

대행 스님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천도도 집안 살림 잘해야 다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큰스님 그거야 그렇죠. 내 한생각이 넓으면 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구요.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 울고 짜고 해 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몸에 병이나 들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민간신앙에서는 혼인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치를 때 풍수지리를 따지거나 길일을 택합니다. 이 집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자손에게 좋지 않다, 또는 점쟁이가 궁합을 보러 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사주가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일진이 윤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는,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가를 든다, 시집을 간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궁합을 볼 게 아니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걸맞는가,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게 궁합이지 무슨 궁합을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네? 날짜에 궁합이 붙고 윤회에 궁합이 붙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맞으면, 아주 좋으면 그냥 궁합이 맞는 겁니다. 여북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에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지리는,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아, 이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다가 그냥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밑이든 물이 질척하든, 그 자리를 파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좌우를 봐서 '야, 이거는 참 좋겠구나. 볕이 들고 아래로 물이 흐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게 참 좋구나. 앞은 산에 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옆으로는 둘러싸여 울타리가 지고, 참 좋구나.' 이런 거뿐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그 용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에 처음에 터를 마련해서 이 집을 짓는데 말입니다, 그 풍수하는 사람들, 뭐, 역학 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떼로 죽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가 또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리고 구랑신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허, 구랑신이 들기는 무슨 구랑신이 들어? 내 마음이 구랑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지, 구랑신이 따로 있어?'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허허허.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도 자리를 보고 덤비지 덮어놓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피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자꾸 재밌어서 쫓아가고 허, 귀신이 오는 거를 그냥 탁 집어서 집어삼키면 쫓아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나면 사람이지. 하하하.

산골이나 밤중이나 그믐밤에 가다 보면 누구든지 꼭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허, 그런데 저는요, 깊은 산속, 그 수십 리 밖의 산골이라도 늠름했던 것은 뭐냐.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십 리 안팎으로 모두 도움을 받았지 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말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걷다가도 낭떠러지가 되면 '아이구,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러고, 하다못해 부엉새도 도와주고, 산비둘기도 도와주고, 지나다니는 뱀도 도와주고 그냥 모두가 다 도와주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는 건 둘로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나올까 봐 겁나고 목신이 나올까 봐 겁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신도 '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며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무서워합니까? 또 공양도 제공하고 말입니다. 하하하. 무슨 공양이냐구요? 그 목신이 말하기를 '저기 조금만 돌아가시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라' 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 영락없이 새끼오락지에 북어 하나가 꿰여 있어요. 하하하.

그 북어 꼬랑지를 잡고 턱턱 돌로다가 쳐서 옆구리에다가 쓱 끼고선 이제 가는 거죠, 또. 그러면 산신 모시는 산당이 있죠? 그런 데로 들어가죠. 거기에 위패도 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오룡 기와집 같아요. 또 상 차려 놓은 널빤지에 단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위패를 베고 드러누워 있으면 세상천지가 전부 내 자리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도 내가 좋았던 그 마음만큼 그렇게 좋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큰 집에서 자고 하면서도 지나가다가 다리 밑 구멍만 봐도요, '어휴, 저기서도 잘 만한데….' 하하하. 습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움막이나 창고라든가 뭐, 짚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아이고, 저기도 살 만한데.' 이래요.

여기 삼막사 올라가는 데 저 위로 빈 움막집이 있는데 '저긴 저렇게 살 만한데 왜 비워 놨을까?' 아, 이러다가 한편 '참, 습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큰 집은 생각을 안 하고요, 꼭 그런 것만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무척 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도 못 합니다. 깡통을 들고 얻어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상황에서 '너 깡통 들고 얻어와라.' 하면 못 얻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농후하게 배었어요. 또 그 하꼬 구루마 끌고 가는 걸 보면요, '아이고, 비가 와도 저기서 그냥 자도 되겠고, 저기서 끓여 먹어도 되겠고 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허허허. 그러니 글쎄,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냥 빙긋이 웃고 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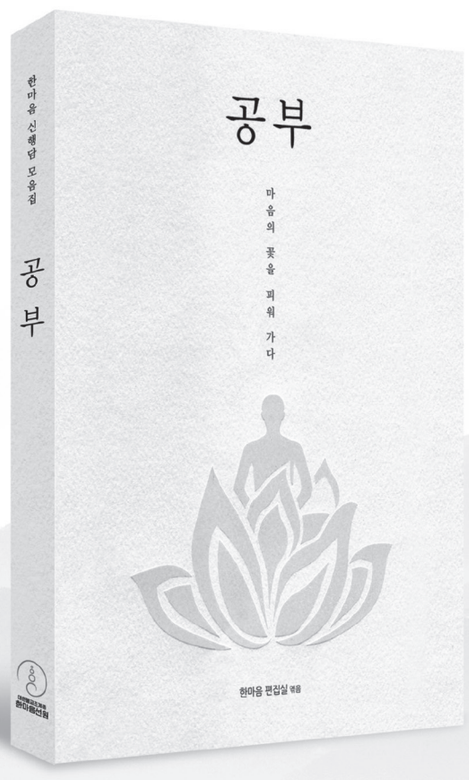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 습이라고 할 거는 없겠지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났든 못났든, 작든 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집을 잘 단속하고 썩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여러분이 능력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참사람이라고 봅니다. 또요?



그림 · 최주현

☞ 22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